

# 형태론과 어휘\*

- 어휘적 단어, 어휘부, 어휘 관계를 중심으로 -

최 형 용 \*\*

## I. 머리말

문법론의 한 하위 분야인 형태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변형생성 문법의 도입 이후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어 연구에서의 형태론의 입지도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문법론의 연구 대상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으며<sup>1)</sup> 1970년대 특히 그 전반은 형태론의 ‘불행한 시기’라 명명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

\* 본고는 2011년 12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어학회 제38회 전국학술대회의 집중강좌를 위해 마련했던 원고의 문면을 다듬고 본문에는 인용되었으나 누락된 참고문헌을 보완한 것이다. 집중강좌의 성격상 그동안 필자가 여러 지면을 통해 이미 발표하였던 논의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일이 출처를 밝히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번다한 글을 『관악어문연구』에 실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국어학회 송철의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1) 안병희 밖에(1997: 3)에서는 국어문법론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이라는 두 연구 대상의 구분이 1950년대까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고 문법론의 연구 대상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1960년대의 허 응(1963), 안병희(1965)에 이르러 비로소 정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영근(1992: 1)에서는 이보다 더 이른 이승녕(1954, 1961)에서 형태부가 설정되고 이를 기초로 품사론 대신 형태론이라는 새로운 부문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임흥빈(1982: 168)에서는 “70년대 특히 그 전반은 국어 형태론을 위해서는 아주 불행한 시기였으며 가령 어떤 논의가 형태론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나 최근의 형태론 연구의 동향은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변형생성문법에서도 스스로 형태론의 관심사가 통사론의 관심사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sup>3)</sup> 어휘부(lexicon)에 대한 연구의 심화와 함께 그 구조와 기능이 단순히 예외들의 목록(a list of exceptions)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문(component)으로서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본 논의는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특히 ‘어휘’에 초점을 두어 형태론의 다양한 논점들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흔히 ‘어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된다.

어휘는 단어들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단어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들은 긴밀하고 느슨한 정도를 따라 서로 영겨 있다. 따라서 어휘는 슬한 성좌를 안고 있는 우주에 비유될 수 있다. 어휘체계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것은 음운체계나 문법체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광활하고 복잡하다.(이기문, 1991: 11)

그런데 형태론에서의 ‘어휘’라는 말은 이러한 정의나 속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어휘부’에 어근과 접사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의 ‘어휘’는 당장 위의 정의나 속성에 부합하지 않고<sup>5)</sup> ‘단어’의 하위 부류에서 ‘어휘적 단어’를 전제하

---

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형태론의 소멸 위기 시대였다고 해도 과히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3) 대표적으로 Chomsky(1970)의 논의를 들 수 있다.
- 4) 시정곤(2002: 201)에 의하면 ‘철수가’와 같은 구성이 어휘부에서 이형태까지 결정된 후 /철수가/와 같은 음운정보를 가지고 통사부에 입력되고, 이후 음성형태화(Spell-Out) 단계에서 이 음운정보가 실현되어 음운구조단계를 이룬 뒤, 다시 음성구조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것이 최소이론의 골자로 언급되어 있다.
- 5) 어휘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송기중(1998: 593)에서는 ‘어휘’를 ‘단어’와 ‘접사’(문법요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기 위해 ‘어휘’를 다소 느슨하게 정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경우에는 ‘어휘’ 를 오히려 ‘단어’ 보다 축소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즉 ‘어휘부’ 에서는 ‘어휘’ 를 광의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어휘적 단어’ 에서는 ‘어휘’ 를 협의로 처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휘 관계’ 라고 했을 때에는 위의 ‘어휘’ 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의는 형태론의 쟁점이 ‘어휘’ 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도 맞물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먼저 ‘어휘’ 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는 ‘어휘적 단어’ 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아무래도 어휘와 단어의 관계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어휘적 단어

### 1. 형태론의 정의와 어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적 단어’ 라는 말은 ‘단어’ 가 ‘어휘’ 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단어’ 가 ‘어휘’ 와 등가물이 아니라는 의미와 함께 ‘단어’ 에 ‘어휘’ 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형태론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형태론에 대한 정의는 물론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가령 Haspelmath(2002: 2-3)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형태론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 (1) 가. 형태론은 단어의 형식과 의미에서의 체계적 공변동(covariation)에 대한 학문이다.
- 나. 형태론은 단어를 산출해 내는 형태소들의 결합에 대한 학문이다.

(1가)의 정의는 가령 ‘nuts’ 의 [s] 와 ‘lapse’ 의 [s] 를 비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전자와 후자는 같은 소리를 가지지만 전자는 ‘복수’ 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후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태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형태론은 전자와 같이 형식과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들의 상관성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나)의 정의는 형태론에 대한 보다 보편화된 정의로서 (1가)보다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drive’ 라는 형태소는 ‘-er’ 이라는 형태소와 결합하여 ‘driver’ 라는 단어를 산출해 낸다. 이 정의를 통해서도 형태론의 범위가 형태소에서 출발하여 단어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정의는 모두 형태론이 단어 내부를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단어’ 인가 하는 점이다. 형태론의 정의를 ‘nuts’ 와 ‘driver’ 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nuts’ 와 ‘driver’ 가 모두 단어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nuts’ 와 ‘driver’ 는 같은 단어의 테두리에 속하기는 해도 그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다. 전자는 ‘nut’ 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s’ 라는 형태소와 결합한 것이고 후자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기 위해 ‘drive’ 가 ‘-er’ 이라는 형태소와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는 어휘 ‘nut’ 가 실제 문장에 나타나는 단어형(word form)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만 후자는 새로운 ‘어휘소(lexeme)’ 로서의 자격을 지닌다.<sup>6)</sup>

6) ‘word, word-form, lexeme’ 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선 Matthews(1991: 24-41)을 참고할 것. 이때의 ‘어휘소’ 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휘부의 등재 단위를 지시하기 위한 김성규(1987: 13)의 ‘어휘소’ 와는 그 성격이 같지 않다.

## 2. 단어의 정의와 어휘

이제 어휘적 단어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nuts’에서 ‘-s’의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때의 ‘-s’는 이른바 굴절 형태소라 언급되는 것으로 단어 내부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앞에서 ‘nuts’와 ‘driver’가 같은 단어 테두리에 포함된다는 언급은 이를 의식한 결과이다. 즉 ‘many nuts’는 [[many nuts]s]가 아니라 [many [nuts]]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sup>7)</sup> 사정이 다르다. 가령 ‘많은 땅콩들’은 [많은 [땅콩들]]이 아니라 [[많은 땅콩들]의 구조를 가진다. 즉 ‘들’은 단어 내부 요소가 아니라 ‘많은 땅콩’이라는 구와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의 단어 개념과 한국어의 단어 개념이 서로 이질적이라는 측면을 분명하게 드러낸 논의로 박진호(1994)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박진호(1994)에서는 단어에 대한 정의 대신 단어 개념을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로 해체할 것을 주장한다. 굴절어를 대상으로 한 서양의 단어관이 공교롭게도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데 비해 한국어는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8)</sup>

7) 다른 언어들과의 유형론적 차이가 부각되는 맥락에서는 ‘국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8) 이때의 통사원자는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서 구(句) 이상과 결합하는 것으로 조사와 어미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박진호(1994: 22)에서 제시된 통사원자의 범주는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격조사, 문말어미, 보조사, 선문말어미, 접속사, 감탄사이다. 한편 송철의(2006: 119)에서 “국어가 교착어임을 강조하면서도 국어를 기술함에 있어서 굴절(폭용과 활용) 체계를 운위 한 것은 국어학 스스로 모순을 용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굴절어를 대상으로 한 문법 모형에 국어의 현상들을 소속시키고자 노력해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한다. 이러한 반성의 결과로 임흥빈(1997)에서 ‘교착법’이 제안되고 이에 따라 조사와 어미는 ‘교착소’가 되고 조사는 ‘체언구 교착소’, 어미는 ‘용언구 교착소’라 다시 자리매김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아직 ‘제안’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곧 단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흥빈·장소원(1995)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2) 가.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음 결합체  
 나. 최소의 자립 형식  
 다. 휴지가 개입할 수 없고 내부가 분리되지 않는 형식

즉, (2가)는 ‘애인’ 과 ‘사랑하는 사람’ 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 하나는 단어로, 다른 하나는 단어보다 큰 것으로 판명된다는 점에서 문제이고 (2나)는 단어인 ‘책상’ 과 같은 예에서 ‘책’ 과 ‘상’ 이라는 더 작은 자립 형식이 분석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문제이며 (2다)는 휴지가 개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어가 아닌 ‘철수가’ 와 같은 예의 존재나 단어이면서도 ‘깨끗은 하다’ 처럼 한 단어의 내부가 분리되는 경우가 문제라는 것이다.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로 부르는 것에 너무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생각 아래 Di Sciullo & Williams(1987: 2)에서는 단어를 ‘형태론적 대상(morphological object)’, ‘통사 원자(syntactic atom)’, ‘등재소(listeme)’,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 의 넷으로 나누었다. Aronoff(1994: 9)에서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음성 형식(sound form of a word)’,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어휘소(lexeme)’ 의 개념을 아우르는 모호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Aronoff(1994)에서는 특히 Aronoff(1976)이 단어 가운데 특히 ‘어휘소(lexeme)’ 을 다룬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9)</sup> 한편 Julien(2007)에서, 단어는 일반 화자가 의식적으로 인지

9) Matthews(1991: 37)에서도 단어 형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휘소 형성(lexeme formation)’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는 형태소 연쇄이기는 하지만 문법적인 실재(entities)는 아니라고 한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 3. 음운론적 단어 개념의 유용성

최형용(2003가)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국어의 단어를 우선 음운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문법적 단어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다. 음운론적 단어는 한국어의 경우 어절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적 단어는 흔히 단어 형성론의 대상으로 단일어와 복합어가 이에 속한다. 문법적 단어는 그 자체로 자립성은 없지만 문장에서 구(句) 이상과 결합하는 조사와 어미를 위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음운론적 단어를 설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利點)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대부분의 음운론적 논의에서 ‘철수가’의 ‘철수’와 ‘가’ 사이의 경계를 형태소 경계로 파악하는 것은 ‘철수가’를 음운론적으로 한 단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명옥(2006, 2008)에서 진정한 한국어의 공시형태론의 대상으로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sup>10)</sup> 무엇보다 형태소의 교체가 여기에서 실현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유형론적 시각을 위해서도 음운론적 단어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서 단어의 범위에 대한 시각은 다음의 셋으로 나뉜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통해 이를 함께 보이기로 한다.

10) 다만 최명옥(2008)에서는 ‘책상’과 같은 것도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하고 있음에는 주의를 요한다. 최명옥(2008: 32-34)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책상’과 구조가 동일한 ‘꽃방석’이나 ‘눈코 뜰 새 없.’과 같은 것도 쪼개면 그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형태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형태소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 (3) 가. 분석적 견해(주시경 등):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간주함.  
 ‘철수’, ‘가’, ‘밥’, ‘을’, ‘먹’, ‘있다’가 단어임.
- 나. 절층적 견해(최현배 등): 조사만 단어로 간주함.  
 ‘철수’, ‘가’, ‘밥’, ‘을’, ‘먹었다’가 단어임.
- 다. 종합적 견해(정렬모, 이승녕 등): 조사와 어미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  
 ‘철수가’, ‘밥을’, ‘먹었다’가 단어임.

위의 견해 가운데 음운론적 단어 개념에 입각한 것은 (3다)이다.<sup>11)</sup> 특히 이승녕(1954: 30)에서는 어절을 단어로 간주하여야 알타이어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국어의 교차어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먹었다’를 ‘먹’, ‘있’, ‘다’의 세 단어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먹었다’ 전체가 한 단어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언어와의 비교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Greenberg(1954)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Greenberg(1954: 218)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100 단어 문장을 표본으로 하여 한 단어당 형태소의 수치인 통합성 지수(index of synthesis)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2)</sup>

(4)

	산스크리트어	앵글로-색슨어	페르시아어	영어	야쿠트어	스와힐리어	베트남어	에스키모어
통합성 지수	2.59	2.12	1.52	1.68	2.17	2.55	1.06	3.72

- 
- 11) 이에 비해 전술한 박진호(1994)의 통사원자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은 (3가)이다.
  - 12) 최형용(2011)에서는 Greenberg(1954)의 방법론에 따라 한국어의 형태론적 현저성(morphological prominence)을 살펴보고 있는데 통합성 지수는 그가 제시한 열 가지 지수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성 지수이다. 통합성 지수를 기반으로 이차적으로 산출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야쿠트어, 스와힐리어는 교착어의<sup>13)</sup> 예이고 베트남어는 고립어, 에스키모어는 이른바 포합어의<sup>14)</sup> 예로 든 것이다. 앵글로-색슨어와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언어의 예로서 각각 현대의 영어 및 페르시아어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3)에서 언급한 ‘철수가 밥을 먹었다.’의 문장을 적용하여 수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 ‘철수가 밥을 먹었다.’의 통합성 지수

단어의 범위에 대한 견해	통합성 지수
(3가)의 분석적 견해	7개의 형태소:6개의 단어=1.17
(3나)의 절충적 견해	7개의 형태소:5개의 단어=1.40
(3다)의 종합적 견해	7개의 형태소:3개의 단어=2.33

Greenberg(1954)는 100 단어 길이의 문장을 대상으로 수치를 제시한 것이므로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한 문장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겠지만 (3가)나 (3나)의 견해에 입각한 수치는 (4)에 제시한 교착어의 예와는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13) ‘교착’은 Greenberg(1954: 20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전적 의미에서 요소의 결합 시 모양에 거의 혹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의 반대는 요소들의 상호 변화 혹은 병합(merging)이다. ‘병합’은 곧 ‘굴절’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판단된다.

14)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포합어는 언어의 형태론적 분류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다가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태론적 분류 가운데 하나로 정착된 개념이다(전상범, 1995: 17-18).

15) 최형용(2011)에서는 음운론적 단어 개념을 이용하여 모두 9개의 예문을 분석하여 통합성 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평균 2.73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 수치는 특히 형태소의 수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인데 가령 ‘철수가 밥을 먹었다.’를 ‘철수가 동화책을 읽었다.’로만 바꾸어도 통합성 지수가 2.33에서 3.00으로 경총 뛴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2.73이라는 수치는 Bauer(1988: 169)에서 제시한 터키어의 2.8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에서 교착어의 예로 제시된 야쿠트어의 2.17과 스와힐리어의 2.55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한편 최형용(2011)에서는 (4)에서 앵글로-색슨어와 산스크리트어가 각각 현대의 영어 및 페르시아어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중세 한국어

#### 4. 어휘적 단어의 범위

한편 어휘적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우선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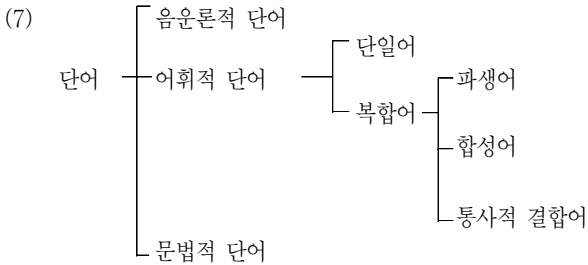
- (6) 가. 공짜로, 꿈에도, 너희들, 동시에, 때로는, 멋대로, 이로부터, 혹시나  
나. 갈수록, 급게급게, 벼락치듯, 아무려면, 어찌하여, 오래도록

(6)은 최형용(2003가: 33)에서 가져온 것인데 (6가)는 조사가, (6나)는 어미가 단어 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그 결합체가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전통적으로 파생어나 합성어와 같은 전형적인 어휘적 단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분석의 관점에서는 이들에서 보이는 조사나 어미를 대체로 접미사로 처리하려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만약 이들을 접미사로 ‘처리’ 한다면 형성의 관점에서 같은 기능을 가지는 동형의 요소를 각각 다른 자격으로 분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의 경우 ‘눈엣가시, 나도 밤나무’ 등과 어미의 경우 ‘어린이, 열쇠’, ‘썩어찌개, 살아생전’ 등 단어의 끝이 아니라 중간에 오는 요소들은 접미사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을 지니게 된다.<sup>16)</sup> 이러한 점에서 최형용(2003가: 34)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통사적 결합어’를 제시하고 파생어 및 합성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단어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

와 현대 한국어와의 비교를 피하였으나 남아 있는 지문의 특성상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외에 현대 한국어의 교착성 지수도 산출해 보았는데 평균이 0.53으로 0.51인 야쿠트어보다는 높지만 0.67인 스와힐리어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분석의 관점 및 형성의 관점에서 접미사의 분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구분관(2005)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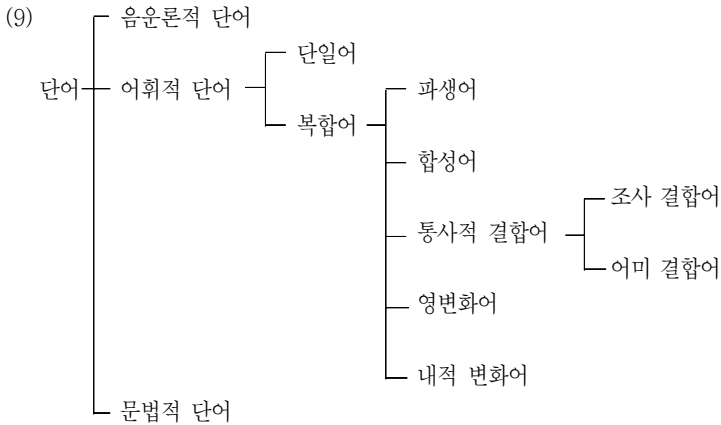
조사와 어미를 접미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접미사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최형용 2003가: 24).

(8) 가. 접미사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

나. 접미사는 항상 외현적(overt)이고 부가적(additional)이다.

(8나)는 이른바 영접미사(zero suffix)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흔히 굴절에서 영형태소를 인정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무표성을 담보하려는 처사인데 단어 형성에서는 영접미사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효적이다. 따라서 영접미사에 의한 ‘영파생’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8나)는 이른바 ‘내적 파생’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일어나는 자음과 모음을 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편의상의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한다면 ‘영파생’과 ‘내적 파생’을 (7)의 파생어에서 떼어내어 독자적인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7)의 통사적 결합어는 결국 다시 조사 결합어와 어미 결합어로 상세화한다는 것을 참고할 때 곧 어휘적 단어에 중심을 둔 국어의 단어 체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최형용 2003가: 128).<sup>17)</sup>

17) 이 가운데 조사 결합어에 대해서는 오규환(2008)에서 보다 정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으며 손혜옥(2008)에서도 그 범주와 특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다. 이상욱(2004)에서는 최형용(2003가)에서는 어미 결합어로 다룬 ‘-음’과 ‘-기’ 결합어를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로 간주하였는데 결합 원리의 관점에서 단어를 비통사론적 구성의 단어와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로 크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내적 변화어'가 아닌가 한다. 먼저 Sapir(1921: 128)에서는 언어에 대한 형태론적 분류로 널리 알려진 기존의 '고립', '굴절', '교착' 등을 '방식(technique)'에 의한 분류로 보고 앞서 살펴본 Greenberg(1954)에서 언급한 '통합성(synthesis)'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적(analytic)', '통합적(synthetic)', '다통합적(polysynthetic)'으로 언어들을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언어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하나로 더 언급한 것이 '상징(symbolism)'이다. 이때의 상징은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해 나타나는 내적 변화를 일컫는데 이것을 언어 유형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다음으로 형태론의 규칙 모형을 상징하는 데도 내적 변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Haspelmath(2002: 48)는 형태론적 규칙을 형태소-기반 모형(morpheme-based model)과 단어-기반 모형(word-based model)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이 가운데 후자의 모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단어-기반 모형이 전환

---

계 양분하고 파생어와 합성어는 비통사론적 구성의 단어로 간주하였다.

(conversion), 역형성(back-formation)과 같은 모든 종류의 비연쇄(nonconcatenative) 과정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는 반면 형태소-기반 모형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단어-기반 모형은, 예를 들어 영어의 명사 'babysitter' 에서 역형성된 'babysit' 라는 동사를 다음과 같은 도식(schema)으로<sup>18)</sup> 형식화한다.

$$(10) \quad \left[ \begin{array}{c} /X/V \\ \text{'do } x' \end{array} \right] \leftrightarrow \left[ \begin{array}{c} /X\text{er}/N \\ \text{'a person who} \\ \text{(habitually)does } x' \end{array} \right]$$

즉 형태소-기반 모형에서는 무언가가 떨어져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단어-기반 모형에서는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양방향 화살표(↔)를 통해 'bake' 에서 'baker' 를 형성시키는 것처럼 이미 '-er' 을 가지는 단어에서 이를 탈락시킨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논리는 한국어의 내적 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20)</sup>

(11) 가. 날씬하다/늘씬하다, 따뜻하다/뜨뜻하다, 가득하다/그득하다 ...

$$\text{나.} \quad \left[ \begin{array}{c} /X\text{아}(C)Y/A \\ \text{'(light) } x' \end{array} \right] \leftrightarrow \left[ \begin{array}{c} /X\text{오}(C)Y/A \\ \text{'(heavy) } x' \end{array} \right]$$

18) 'schema' 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틀' 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aspelmath(2002)가 그런 입장에서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여기서는 '도식' 정도로 번역해 둔다.

19) 한국어에서도 '줄임' 에 의한 단어 형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형용(2003나), 이은섭(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줄임' 에 의한 단어 형성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음절축소형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박보연(2005)을 참고할 것.

20) 예들은 송철의(1992: 293)에서 가져온 것이다.

(11나)는 (11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음 ‘아’와 ‘으’가 변이되는 것을 보인 것으로 그 의미를 ‘light’, ‘heavy’로 명세한 것은 편의상 ‘아’가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으’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가진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sup>21)</sup> 즉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내적 변화어는 단어-기반 모형으로 단어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5. 어휘적 단어와 품사

어휘적 단어가 문법적 단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품사 분류이다. 이 문제는 이미 (3)에서도 어느 정도 예정된 바 있다. 품사를 ‘단어들을 그 공통성에 따라 나눈 갈래’라고 폭넓게 정의할 때 앞에서 상정한 조사와 어미가 품사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품사는 보통 ‘parts of speech’ 혹은 ‘word class’를 번역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역사적 연원에서 그 출현 동기가 달라 전자는 의미를 중시하는 서양 전통 문법을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기원하였다. 특히 후자는 이를 품사 대신 ‘유어(類語)’로 번역하여 구분한 적이 있지만(이광정 2008: 40-41) 지금은 이들 차이를 크게 부각시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본 논의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용어를 통한 품사 개념의 외연적 범위이다.

21)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가령 ‘날씬하다’와 ‘늘씬하다’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그 의미를 양쪽 모두 ‘ㄹ’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날씨가 따뜻하다’/‘날씨가 뜨뜻하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 차이가 전혀 없지도 않고 또 그 의미가 ‘light’와 ‘heavy’로 모두 포괄되지도 않지만 여기서는 의미상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포착해 두는 정도로만 표시하기 위해 이를 괄호 안에 넣어 두기로 한다. 이를 포함하여 Haspelmath(2002)에 기반한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적 특성은 최형용(2007나)를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parts of speech’ 에서 주목할 것은 ‘speech’ 이다. ‘speech’ 의 현대적 개념이 그리 명확하지는 않지만 ‘parts of speech’ 가 이광정 (2008: 37)에서 재인용된 바와 같이 그리스어 ‘morē tou lou’ 즉 ‘part of sentence’ 혹은 ‘part of phrase’ 정도의 오역이 맞다면 품사는 ‘문장’ 의 어떤 ‘일부’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일부’ 는 문장을 잘라서 얻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 언어학적 개념에서 형태소 혹은 그보다 작은 언어 단위로까지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품사를 ‘word class’ 라 한 것이 참조된다. 앞에서 이미 품사를, ‘단어를 그 공통성에 따라 나눈 것’ 이라 하였기 때문에 품사와 단어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품사가 문장의 일부 가운데 단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품사에 대한 ‘parts of speech’ 에 품사를 나누기 위한 상한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word class’ 에는 그 하한선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어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 형성을 문제 삼는 통사론과 단어 형성을 문제 삼는 형태론 사이에 ‘단어’ 더 나아가서 ‘품사’ 에 대한 시각차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한국어에는 단어 형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주로 어휘적 단어에 초점을 두어 조사와 어미와 같은 의존적인 형식들이 배제되어 있고 이는 화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어 조사와 어미와 같이 의존적이지만 통사 단위로 기능하는 것들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 기능이 주된 것들에도 품사의 지위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사론의 입장에서는 어휘적인 허실이 그다지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22)</sup> 단어가 통사 단위로 인

22) 현대 형태론의 입장에서도 어휘적인 요소보다 문법적인 요소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먹이’ 에서,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체의 품사를 명사로 결과시키는 과생 접미사 ‘이’ 에 핵(head)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정된다면 구(句) 이상과 결합하는 국어의 조사와 어미도 통사 단위가 되는 것이며 명사나 동사와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sup>23)</sup> 따라서 조사뿐만이 아니라 어미도 품사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품사는 형태소나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이 모여서 된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문장에서 출발한 개념이며 어휘적인 것에만 한정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서 품사 분류에 있어 어휘적 단어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당장 품사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인 Anward(2001: 53)에서 품사(parts of speech)를 ‘어휘 항목에 대한 분류(a classification of the lexical items)’라 정의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 이광정(2008)에서도 조사와 어미를 품사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규범 문법에서도 이들을 토라 하여 품사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단어의 유구한 연원을 볼 때 철학적 관점에서 어휘적 단어를 분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다. 어휘적 단어는 대체로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화자의 직관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어휘적 단어의 ‘어휘성’에만 의존한다거나 ‘자립성’을 품사 설정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Dixon & Aikhenvald(2002: 1-37)의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도움이 될 듯하다. Dixon & Aikhenvald(2002)에서는 음운론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가<sup>24)</sup> 일치하는 언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어서 음운론적

23) 사실 품사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지 통사론의 논의에서 조사나 어미가 명사나 동사와 대등한 범주로 인식되어 ‘NP, VP’와 함께 ‘KP, DP, CP, TP’ 등으로 불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4) 여기서의 문법적 단어는 앞서 언급한 국어의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단어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최형용(2003가)의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처럼 단어를 어휘적 단어(lexical word),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로 나누는 경우는 Booij(2010: 26)에서 보인다. 여기서는 영어를 대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어휘적 단어로 간주하였고 관사, 전치사 등을 문법적 단어로 보고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문법적 단어로 이루어진 언어도 있고 반대로 문법적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음운론적 단어로 이루어진 언어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5)</sup> 또한 언어에 따라서는 어휘적 단어가 자립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sup>26)</sup>

---

있어 서로 겹치지 않는다. 반면 (7)이나 (9)의 음운론적 단어는 어휘적 단어와 겹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흔히 어휘적 단어만으로도 어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보지 않는 논의도 있다. 가령 시정근(2002)에서는 어휘적 단어만으로는 어절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본다. 어절은 문장의 단위이므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하더라도 가령 ‘책 읽어!’의 ‘책’은 이른바 굴절형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책 읽어!’의 ‘책’을 목적격 조사 생략형이라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임홍빈(2007)에서는 이 경우의 ‘책’을 무조사구로 간주하고 목적격 조사 생략형이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책’은 일종의 제시어로서 ‘읽’의 논항이 아니며 가변 중간 투사론을 원용하여 실제 논항 자리는 비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책’이 ‘읽’의 논항처럼 간주되는 것은 재구조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형태론적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책 읽어!’가 ‘책을 읽어!’에서 ‘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가령 ‘힘들다’와 같은 이른바 통사적 합성어에서 조사 생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힘들다’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에서 ‘힘’을 논항이 아니라 제시어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형용(2003: 57)에서는 ‘책 읽어!’와 같은 문장을 의미론적 논항만 실현된 ‘어휘론’이라고 본 바 있다.

25) 한편 Dixon & Aikhenvald(2002: 29-31)에는 더 복잡한 경우로 문법적 단어의 수와 음운론적 단어의 수가 같지만 그 묶음의 범위가 서로 다른 피지어의 ‘a + i-sele’와 같은 구성도 소개되어 있다. 이 구성은 문법적으로는 관사인 ‘a’와 파생 명사인 ‘i-sele’로 나뉘지만 음운론적으로는 ‘+i-’와 ‘sele’로 나뉜다고 한다.

26) 그 예로 든 것은 Jarawara의 명명(命名) 관련 명사이다(Dixon & Aikhenvald, 2002: 33). 이 언어에서는 가령 새로운 종의 새가 나타나서 이를 명명할 때는 계사나 자동사 혹은 문법적 성을 가리키는 접미사와 결합해서만 해당 명사가 쓰일 수 있다고 한다.

### III. 어휘부

#### 1. 어휘부의 성격에 대한 접근들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부(lexicon)는 특히 형태론의 단어 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박진호(1999: 338)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어휘부에 대한 탐구는 인공지능 연구, 나아가 인지과학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이라는 학문의 정체성 내지 유용성을 확보하고 인접 학문들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여 형태론의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어 형성을 생성형태론적 측면에서 규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유추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어휘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적지 않은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sup>27)</sup> 송원용(2010)에서는 그동안의 규칙론과 유추론에 대해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어휘부에 관련되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들 각각의 접근이 결국 어휘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규칙론의 입장에서 있는 시정곤(2001: 170)에서는 어휘부를 ‘사전’, ‘단어형성부’, ‘단어

---

27) 물론 생성형태론의 어휘부를 이론어휘부, 인지언어학의 어휘부를 심리어휘부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어휘부의 다양한 함의 및 이론어휘부와 심리어휘부에 대한 구별적 비교는 채현식(2003가: 11-15), 안소진(2011: 12-20)을 참고하기 바란다. 안소진(2011)에서는 심리어휘부도 ‘실재하는 어휘부로서의 심리어휘부’와 ‘추상화된 어휘부로서의 심리어휘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자가 개개인의 어휘부라면 후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공통성에 초점을 둔 어휘부이다.

해석부' 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사전' 은 다시 '임시 저장소' 와 '영구 저장소' 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영구 저장소' 는 '활성부' 와 '비활성부' 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우선 흥미로운 것은 공식적 단어 형성 규칙을 통해 형성된 단어가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는 것을 '저장' 이라 하고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었던 단어가 영구 저장소로 저장되는 것을 '등재' 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8)</sup> 또한 영구 저장소에는 어근, 접사, 단일어, 파생어, 복합어, 연어, 관용어, 속담 등이 저장되어 있고 불규칙한 굴절형과 파생어의 경우는 대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29)</sup> 그런데 등재 단위만 놓고 본다면 이에 대해 유추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채현식(2007)에서는 Bybee(2001)의 용례 기반 이론(usage-based model)<sup>30)</sup> 기초하여 어휘부는 고도로 조직화된 저장부만 남게 되고 어휘부에서 단어 형성부 혹은 단어 형성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어 형

28) 저장에 대한 이러한 이중 구조에 대한 비판은 송원용(2010: 28)을 참고할 것.

29) 규칙론을 주장하는 황화상(2001: 70)에서는 어휘부를 사전과 단어형성부로 이분하고 있는데 사전에는 접사와 어근이, 단어형성부에는 어휘적 단어형성부와 통사적 단어형성부가 있다. 한편 유추론을 주장하는 채현식(2003가)도 그 조직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근, 접사, 단일어, 파생어, 복합어, 연어, 관용표현 등이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규칙론자와 다르지 않다.

30) 채현식(2009: 271)에서는 용례 기반 이론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최대주의(maximalist)이다. 곧 화자의 어휘부는 생산적인 패턴을 보이는 복합어들도 저장되어 굉장히 잉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비환원주의(non-reductionism)이다. 곧 복합어는 인지적 실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구성요소와 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쑈시개' 는 '이', '쑈시', '개' 라는 구성요소와 'N-V-이' 라는 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쑈시개' 는 '이를 쑈시는 모든 도구' 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쑈시개' 에 대응하는 특정한 사물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규칙성과 제약은 밑에서 위로(bottom-up) 만들어진다. 곧 실제 단어들이 먼저 주어지고 규칙성과 제약은 실제 쓰이는 단어로부터 만들어진다. 밑에서 위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부분적인 생산성을 보이는 형태론적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성 규칙은 심리적 실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규칙을 통한 과잉생성, 과잉분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이다.<sup>31)</sup> 이에서 더 나아가 어근이나 접사를 위한 부문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sup>32)</sup> 어휘부는 결국 단어들이 다층적 층위에서 연결망을 이루는 구조이며 연결망 속의 단어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복잡계(complex system)로 간주되고 있다. 복잡계는 ‘창발(emergence)’ 과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을 핵심으로 하는데 어휘부에서 유사한 단어들끼리 연결되는 과정이 바로 자기조직화이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틀(schema)’ 이 창발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규칙론에서의 규칙은 어휘부의 단어들과 떨어져 존재하는 반면, 틀은 어휘부의 단어들과 연결되고 규칙은 정적인 표상으로 존재하는 반면, 틀은 동적인 표상으로 존재하며 규칙이 도출의 방향성을 지니는 직렬(serial) 처리 과정을 전제로 하는 반면, 틀은 도출의 방향성을 포함하지 않는 일종의 형판(template)이라는 점에서 병렬(parallel) 과정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sup>33)</sup>

31) 황화상(2010)에서는 규칙을 어느 한 단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과잉생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이는 결국 어휘부를 단어 저장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셈인데(채현식, 2007: 131) 어근이나 접사를 위한 부문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송원용(2005나)에서 정리한 바 있듯이 어휘부가 단어가 저장되는 표층 어휘부와 접사가 저장되는 심층 어휘부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중 어휘부 구조 가설(double layer lexicon hypothesis)과는 차이가 난다. 어휘부를 이처럼 표층 어휘부와 심층 어휘부로 나눈 것은 이미 채현식(2003가: 19-20)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채현식(2007: 141-142)에서는 “어휘부는 단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복잡계이고, 단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나 단어형성능력은 단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창발된다. 기존의 단어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부문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단어형성부(단어형성규칙)나 단어해석부, 또는 어근이나 접사의 목록으로 이루어진 형태소목록부 등은 폐기된다.” 고 하였다. 송원용(2010)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채현식(2007)의 어휘부 구조와 등재단위에 대한 언급을 견해 수정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용례 기반 이론에 따른 어휘부 구조에 대한 소개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어휘부의 등재 단위에 대해서는 § 3.3에서 종합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33) 최근의 단어 형성론 논의를 보면 규칙론과 유추론이 서로 대립 관계에

## 2. 어휘부의 잉여성

그렇다면 과연 어휘부는 규칙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ronoff(1976)의 저지현상(blocking)이다. 이는 가령 영어의 'Xous' 형용사들은 명사 형성을 위해 단 하나의 칸만 가지고 있는데 이 칸이 이미 채워지면 다른 명사 형성이 의미론적으로 저지된다는 것이다.<sup>34)</sup> 송철의(1992)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고유어 척도명사 형성에서 이와 평행한 현상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2) 가. 높이	*
길이	*
깊이	*
넓이	*
*	굽기
*	기울기
*	밝기
*	세기
나. 키	크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규칙론에서도 단어 형성에 있어서의 유추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유추론에서도 단어 형성 규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규칙론을 주장하는 황화상(2010)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한편 채현식(2010: 154)에 따르면 용례 기반 이론에 기반한 '틀'은 직렬 처리가 아니라 병렬 처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직렬 처리에 기반한 규칙론에서 제시해 온 괄호매김역설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다. 결국 이는 '고기잡이'에 대해 [[고기잡이]]와 [[고기[잡이]]] 두 가지의 분석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최형용(2000: 186, 2003가: 178)에서 주목한 바 있고 황화상(2010: 73)에서도 화자의 언어적 직관 측면에서 이를 다시 언급한 바 있다.

34) 따라서 저지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빈칸은 우연한 빈칸이 아니라 체계적 빈칸이 된다고 본다.

현대 한국어에서 접미사 ‘-이’ 는 척도명사를 파생시키는 데 있어 더 이상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척도명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기, \*길기’ 등이 명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저지한다. 또한 (12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굵-, \*기울-, \*밝-, \*세-’ 등이 가지는 척도명사의 빈칸은 ‘-기’ 에 의해 형성된 명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은 당연히 ‘-기’ 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저지현상의 예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2나)는 송철의(1992: 120)에서의 설명처럼 저지현상의 예외는 아니다. ‘키’ 가 ‘身長’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척도명사 ‘크기’ 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sup>35)</sup>

그러나 하나의 빈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상과 같은 설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 (13) 가. 꿈지럭거리다/꿈지럭대다, 꿈틀거리다/꿈틀대다, 끄덕거리다/끄덕대다, 머무적거리다/머무적대다, 기웃거리다/기웃대다, 더듬적거리다/더듬대다 …  
 나. \*꺼칠거리다/\*꺼칠대다, \*몽게거리다/\*몽게대다 …  
 다. 흔들거리다/\*흔들대다  
 라. \*으스거리다/으스대다, \*어기거리다/어기대다

(13)은 의미와 기능 면에서 매우 유사한 ‘-거리’ 와 ‘-대’ 파생어를 보인 것이다. (13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 ‘-대’ 에 의한 파생의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거나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13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 저지현상이 특히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하’, ‘-답’, ‘-되/롭’, ‘-스럽’ 과 ‘-的’ 의 배타적 분포를 들 수 있다. 김창섭(1996: 181-190)에서는 이들 사이의 배타적 분포는 ‘-的’ 파생어가 품사 범주로는 형용사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저지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거리’와 ‘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불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하다.<sup>36)</sup> 즉 예외적인 (13다, 라)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리’와 ‘대’ 파생은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휘부는 잉여적일 수밖에 없다.<sup>37)</sup>

(13)과 같이 동의성을 보이는 단어들이 모두 파생어이면서 접사에만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동의파생어’ (최형용, 2006나: 354)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는 이러한 동의파생어가 적지 않다. 최형용(2008)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1999) 편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의파생어들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규모는 모두 4,041개 쌍에 이른다.<sup>38)</sup> 이 가운데 접미사가 대응소인 경우가 4,003개(99.1%)이고 나머지 38개(0.9%)는 접두사가 대응소인 경우이다. 그리고 동의파생어 쌍 전체는 모두 151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136개 유형이 접미사가 대응소인 것이고 나머지 15개 유형은

36) (13다, 라)의 예들을 통해서는 ‘거리’와 ‘대’가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가령 조남호(1988: 68)에서는 ‘대’ 파생어가 ‘거리’ 파생어보다 ‘적극적인 동작’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37) 어휘부가 잉여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휘부의 등재 단위와 관련된 ‘최소 등재’, ‘완전 등재’, ‘절충적 등재’의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완전 등재의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현식(2003가: 29-46)에서는 이들 세 견해 가운데 완전 등재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저지현상을 들고 있다. 즉 저지하는 단어들은 등재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고의 (13)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단어들도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논하면서 어휘부가 잉여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Aronoff(1976)은 생산성이 높은 것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절충적 등재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파생어 형성에 나타나는 빈칸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형용(2004)를 참고할 것.

38)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국립국어연구원(2002가: 21)에 제시된 품사별 표제어 분류에서 대명사, 수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의 수를 모두 더한 것(3,671개)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이는 가령 저지 현상과 같은 어떤 단일 현상에 대한 ‘예외’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접두사가 대응소인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13가)와 같은 것들로 모두 3,624개 쌍이 이에 포함되며 그 동의성의 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sup>39)</sup>

### 3. 어휘부의 등재 단위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검증

최근에는 어휘부의 등재 단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언어학적 실험이 시도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듯하다. 본 논의에서는 송원용(2009, 2011)을 예로 들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송원용(2009)에서는 선어말어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및 실험 가설을 설정하였다.

(14) 가. 국어 선어말어미는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진다.

나. 국어 선어말어미 단독형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은 해당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짧다.

요컨대 송원용(2009)는 선어말어미 단독형과 어간 결합형을 자극으로 사용하는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선어말어미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시간이 어간 결합형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짧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추론통계의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먹었다, 먹겠다’와 같은 활용형이 통사적으로는 복합적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응 시간에 대한 실험과 통계학적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sup>40)</sup> 통사론적으로 독자적인 문법 단위인 분리적 선어말어미와 동일한 심리적 실재성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결과되었다. 이것은 곧 통사론적 복합 구성인 용언의 활용형이 국어 화자의 심리적 어휘부에 독자적인 어휘 표상으로 등재되지 않는다는 일반

39) 동의과생어는 어휘 관계의 측면에서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 4.1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40) 실험과 그에 따른 통계적 해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원용(2009)를 참고할 것.



적 경향에서 벗어난 것이고 (14가)의 연구 가설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송원용(2009)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단위가 일상 구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복합적 문법 단위라는 점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복합적 문법 단위를 매번 조합하지 않고 어휘부에 등재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의 발로로 해석하고 있다.<sup>41)</sup> 송원용(2010: 40)에서는 각주에서 이 문제는 분리적 선어말어미의 제시 방식 때문에 생긴 반응시간의 지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활용형과 달리 선어말어미 단독형은 ‘시’, ‘었’, ‘겠’ 과 같이 앞뒤에 줄표를 단 형태로 피험자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규칙형이 어휘부에 등재될 수 있다는 논의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Haspelmath(2002: 44)는 모든 예측되지 않는 단어들만 저장되어 있다거나 혹은 생산적 규칙들에 의해 형성된 단어까지도 모두 등재되어 있다는 어휘부의 극단적인 두 모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것들과 몇몇 생산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된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는 절충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된 단어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have, say, make’ 의 과거형을 들고 있다. 원래 이들의 과거 시제 형식은 ‘haved, sayed, maked’ 처럼 완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지금은 불규칙적인 것이 되었는데 만약 화자들이 이들 단어들을 자신의 어휘부에 저장하지 않았더라면, 즉 만약 화자들이 단지 어간만을 저장하고 ‘-ed’ 첨가 규칙을 매번 적용했다라면 이들이 불규칙으로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도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sup>42)</sup>

한편 송원용(2011)에서는 노명희(2005)에서 2음절 한자어의 직접

41) 반면 채현식(2003가: 49)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동사와 어미의 결합은 통사적 결합이므로 이들은 어휘부에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2) 이 외에도 규칙적인 굴절형들이 심리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언급과 그 예에 대해서는 Booij(2010: 242-244)를 참고할 것.

성분을 이루는 요소이며 자립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형태론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활동’, ‘개혁’의 ‘활’, ‘혁’과 같은 ‘비활성어근’, 2음절 한자어의 앞뒤에 결합하여 단어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가건물’, ‘한국인’의 ‘가’, ‘인’과 같은 ‘약활성어근’,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져서 마치 ‘N+N’ 구성의 선행 성분처럼 기능하는 ‘가전 제품’, ‘국제 사회’의 ‘가전’, ‘국제’와 같은 ‘강활성어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류 방식이 인지적, 심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5) 가. 비활성어근에 대한 반응시간은 대응 복합어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길다.  
 나. 약활성어근에 대한 반응시간은 대응 복합어에 대한 반응시간과 차이가 없다.  
 다. 강활성어근에 대한 반응시간은 대응 복합 구성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짧다.

실험 방법은 송원용(2009)와 평행한데 그 결과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비활성어근 ‘활’, ‘혁’에 대한 반응시간은 각각 ‘활동’, ‘개혁’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길었다. 약활성어근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가’에 대한 반응시간은 ‘가건물’에 대한 반응시간과 차이가 없지만, ‘인’에 대한 반응시간은 ‘한국인’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길었다. 강활성어근의 경우는, ‘가전’에 대한 반응시간은 ‘가전 업체’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짧았지만, ‘국제’와 ‘대북’에 대한 반응시간은 각각 ‘국제 사회’,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시간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된 어휘부화적 해석의 결과는 비활성어근은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약활성어근은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는 부류(‘가’)와 그렇지 않은 부류(‘인’)로 나뉜다는 것이다. 한편 강활성어근은 모두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며 제한적 자립성을 획득하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데 우선 어근 가운

데는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만 오히려 ‘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상 외의 결과라고까지 할 수 있다.<sup>43)</sup> 흔히 같은 취급을 받는 ‘가진’, ‘국제’, ‘대북’과 같은 것들도 반응시간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44)</sup>

이상의 논의들을 어휘부 등재 단위에만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규칙론을 주장하는 시정곤(2001), 유추론을 주장하는 채현식(2003가), 송원용(2009, 2011) 등의 논의를 통해 어근, 접사와 같이 단어보다 작은 것도 등재되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채현식(2007)의 용례 기반 이론에 기댄 어휘부 모형에서는 어근과 접사는 어휘부 등재 단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최근 인지언어학의 구성 문법(construction grammar)에서도 형태소는 언어적 기호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형태소는 그야말로 ‘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태소가 인식되는 것은 형태론적 구성에서 이들이 그 일부분으로서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서뿐인 것이다(Booij 2010: 15).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서는 시정곤(2001), 채현식(2003가)에서도 어휘부의 등재 단위가 된다고 본 관용어 등은 어휘부의 등재 단위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sup>45)</sup> 이번에는 이들이 형태

43) 이에 대해 송원용(2011: 234)에서는 각주에서 ‘인’이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인’이 ‘국가명’에 예외 없이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인, 하수인, 매도인, 매수인’과 같이 관련 복합어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낮은 유형 빈도를 반응 시간 지연의 근거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44) 전술한 안소진(2011)도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통하여 국어 한자어의 형태론적 특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안소진(2011: 92)에서는 여러 한자어 형태소 중 자립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접사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소가 명확한 형태소 파악을 위한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며 이 경우에는 의미를 가진 단위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능을 하는 단위로까지 인식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5) 용례 기반 이론에 따른 어휘부 구조에서 단어보다 더 큰 단위가 등재되어 있다고 간주하는지 여부는 채현식(2007)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소와는 달리 바로 '구성' 이기 때문이다.<sup>46)</sup> 이 가운데 어떤 견해를 취하든 어휘부에는 전술한 '어휘적 단어' 이상의 것이 등재되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즉 '어휘부'의 '어휘'가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Di Sciullo & Williams(1987: 1)에서 화자의 어휘부에 기억되는 언어적 형식을 어휘소(lexeme)가 아니라 등재소(listeme)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sup>47)</sup>

#### IV. 어휘 관계

##### 1. 동의어에 대한 형태론적 접근

'어휘 관계'라고 할 때의 '어휘'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이기문(1991: 11)의 '어휘'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어휘 사이에서 보이는 어휘 관계는 의미론 특히 어휘론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 어휘 관계에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 '동의파생어'도 이러한 관점의 산물이다. 가령 어휘의미론적 관점에서 임지룡(1992: 137-141)에서는 Jackson(1988: 68-74)의 논의를 토대로 국어의 동의어를 방언, 문체, 전문성, 내포, 완곡어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46) 이렇게 보면 단일어도 '구성'이라고 볼 수 없을 듯한데 Booij(2010: 15)에 인용된 표에는 'the'와 같은 것도 구성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즉 이 표에는 'tentacle, gangster, the'와 같은 단어로부터 숙어를 거쳐 'Subj V Obj<sub>1</sub> Obj<sub>2</sub>'와 같은 이중 목적어 구성도 제시되어 있다.

4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성규(1987: 13)에서는 Di Sciullo & Williams(1987: 1)의 등재소(listeme)에 해당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어휘소(lexeme)를 사용하고 있다. 어휘부의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상정하는냐에 따라 등재소의 범위에 이동(異同)이 있겠지만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도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든 아니면 단어보다 더 큰 단위도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든 단어 형성 과정의 출력형을 어휘소로 보게 되면 이는 등재소에 포함되는 개념이 된다.

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예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6) 가. 백부(伯父) : 큰아버지(대구·상주)/맡아버지(안동)  
 백모(伯母) : 큰어머니(대구·상주)/맡어머니(안동)  
 나. 고유어-한자어 : 머리-두상(頭上), 이-치아(齒牙)  
 고유어-서구어 : 불고기집-가든, 가게-수퍼마켓, 동아리-씨클  
 고유어-한자어-서구어 : 소젖-우유-밀크  
 다. 화학 : 염화나트륨-소금, 지방-기름  
 승려 : 곡차-술  
 라. 즐겁다-기쁘다, 불쌍하다-가연다  
 간호부-간호사  
 마. 죽다-돌아가다, 천연두-마마

(16)에 제시된 동의어들은 단어를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눈다고 할 때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7) 가. 단일어 : 단일어  
 동아리-씨클  
 나. 단일어 : 파생어  
 불쌍하다-가연다  
 다. 단일어 : 합성어  
 머리-두상(頭上), 이-치아(齒牙), 불고기집-가든, 가게-수퍼마켓, 소  
 젖-우유-밀크, 염화나트륨-소금, 지방-기름, 곡차-술, 죽다-돌아가  
 다  
 라. 파생어 : 파생어  
 간호부-간호사, 즐겁다-기쁘다  
 마. 파생어 : 합성어  
 백부(伯父) : 맡아버지(안동)  
 백모(伯母) : 맡어머니(안동)  
 바. 합성어 : 합성어  
 천연두-마마

(17)의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sup>48)</sup> 동의어의

48) 가령 ‘즐겁다-기쁘다’에서 보이는 접미사 ‘-업’, ‘-브’가 공식적으로

형태론적 구조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모두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이 가운데 (17다)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온 바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가 동의어 쌍을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이에 속하기 때문이다. 동의파생어는 이 가운데 (17라)의 ‘간호부’와 ‘간호사’의 경우인데<sup>49)</sup> 이들은 어기인 ‘간호’를 공유하고 있지만 접미사가 차이가 나는 동의어이다. 이러한 관심은 앞서 언급한 저지현상에 대한 예외 측면에서 형태론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론적 관점에서 동의어의 정도성 측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이광호(2002: 73)에서는 동의어가 공존하는 이유를 ‘①표현 의미의 차이로 인해 공존하는 것’, ‘②통사적으로 변별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③중첩 의미 외에 가지는 다의적 용법으로 인한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①과 ②는 동의성이 강하지만 ③은 이들보다는 동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동의파생어는 이들 세 가지 가운데 동의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①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의성의 검증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체 가능성을 예로 들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8) 가. 통 {안/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나. 나는 어제 오후 내내 걱정 {안/속}에서 동생을 기다렸다.

(19) 오늘은 {간호부/간호사}가 병실에 들르지 않았다.

(18)의 ‘안’과 ‘속’은 (18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동의 관계를 보이지만 (18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는 더 이상 생산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단일어 : 단일어’에 넣을 수도 있고 ‘백부-만아버지’의 ‘만’을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합성어 : 합성어’에 넣을 수도 있다. 또한 ‘간호부-간호사’의 ‘부’와 ‘사’를 접미사로 간주하지 않고 ‘합성어 : 합성어’에 넣을 수도 있겠다.

49) ‘간호원’도 가능할 듯한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호부’와 ‘간호원’을 ‘간호사’의 전 용어로 풀이하고 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동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서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 과 ‘속’ 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의성을 보이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비해 (19)의 동의파생어 ‘간호부’ 와 ‘간호사’ 는 맥락에 상관없이 ①에 해당할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이고 있다.<sup>50)</sup> 이는 동의파생어가 우선 (17)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로 흡사한 부분이 가장 많고 아울러 의미적인 측면에서 의미의 중심인 어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가설 한 가지는 형태론적 구조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동의성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동의성의 정도를 언급할 때 동의어의 형태론적 구조에 착안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 2. 어휘장에 대한 형태론적 접근<sup>51)</sup>

그동안 파생어에 대한 논의는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접미사나 접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달개’ 의 경우처럼 ‘개’ 가 전체 구성의 분포를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개나리’ 의 ‘개’ 와 같이 의미나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덜 미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종이 사전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제항을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접사가 서

50) ‘간호부/간호사’ 의 경우는 (18나)와 같이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상정할 수 있다면 어느 한 가지는 가능하지만 다른 한 가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형용 (2008: 32)에서는 ‘간호부/간호사’ 대신 다음과 같은 ‘날벼락/생벼락’ 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생벼락)이 친다.

나. 누가 이런 (날벼락/생벼락) 맞을 일을 했을까?

51) 이 부분은 어휘장에 대한 형태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 준비 중인 논의의 서론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조만간 어휘장 형태론에 대해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로 다른 어기끼리의 관계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메타적인 방법으로 파생어의 형성을 논의하려는 규칙 중심적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단어 사이의 계열적 관계를 중시하는 유추 중심적 접근 방법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그런데 합성어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다르다. 합성어는 내부 구조를 가지지 않는 형태소 하나짜리의 결합이든 둘 이상의 형태소의 결합이든 직접 구성 요소가 어기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기끼리의 결합이므로 규칙 중심적 접근 방법에서도 유추 중심적 접근 방법에서 어기 사이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은 주목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유추 중심적 접근법은 실제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매우 중시하는 까닭이다.

계열 사이의 연관성은 경우에 따라 더 밀접하거나 더 느슨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전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뒷개’와 ‘지우개’의 연관성은 ‘고기잡이’와 ‘손잡이’에 비해 더 밀접하다. 한편 ‘뒷개’와 ‘지우개’가 일정한 범위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팔찌’와 ‘배찌’의 경우는 ‘X찌’가 신체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같이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 채 일정한 범위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들의 모임이 바로 어휘장(lexical field)이다.<sup>52)</sup>

52) ‘어휘장’ 대신 ‘날말밭’이나 ‘의미장’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의미장’은 개념적 공통성이나 유사성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 ‘날말밭’은 ‘어휘장’의 고유어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 가운데 ‘어휘장’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본 논의가 형태론적 관점과 관련된 ‘어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흔히 ‘어휘장’ 이론의 창시자는 Trier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휘장이란 것은 내용상으로 봐서 인접하고 있고, 상호적으로 의존해서 상호 간에 그 기능을 규정하는 한 무리의 단어들이다.”(박종갑, 2001: 66에서 재인용)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어휘장 안에서의 개개의 단어는 모자이크처럼 분할·획정되어 이웃 단어들과 개념적 친족관계를 구성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빈틈없는 구성과 뚜렷한 윤곽으로써 분절된 전체 즉 개념 연합체 또는 개념 영역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는 Humboldt의 언어관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Humboldt는 언어를 철저히 ‘분절화된 전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스 슈바르츠(2006: 220)에 의하면 Trier보다 앞서 Ipsen이 Meyer의 ‘의미 체계(Bedeutungssystem)’에 의거



어휘장은 어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가령 ‘동, 서, 남, 북’은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 반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뎃셈’과 ‘뽻셈’,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통 의미가 어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하위 관계 포착도 가능하다. ‘방위(方位)’는 이것이 공통된 의미일 뿐만 아니라 ‘동’, ‘서’, ‘남’, ‘북’에 대한 상위어의 자격을 가진다. 김광해(1989)에서는 어휘장 이론을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현상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고유어가 대응되는 여러 한자어들의 공통 의미라고 본다. 즉 고유어가 상위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sup>53)</sup>

(20) [땅] - 육지, 대지, 토지, 지표, 영토, 토대, 택지, 대륙, 지구, 지방, 전답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휘장도 형태론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장 ‘동, 서, 남, 북’과 같은 기본 방위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어 형성 접근에서는 거의 언급할 것이 없지만 의미를 공통 요소로 삼는 어휘장의 측면에서는 이들이 모두 한자어로서 음절수를 같이 한다는 일종의 제약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모인 어휘장은 구성 요소 사이에 분명한 계열 관계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논의거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의에서 어휘장을 형태론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어휘장은 공통된 의미

---

하여 ‘의미장(Bedeutungsfeld)’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Trier와 그의 학파는 ‘의미’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함의 때문에 그 대신 ‘언어장(sprachliches Fel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단어장(혹은 ‘낱말밭’(Wordfeld))’은 그 하위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나라 안팎의 어휘장 이론에 대한 발달 과정은 정시호(1994)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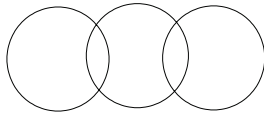
53) 김광해(1989)에서는 오른쪽의 한자어들을 훨씬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부만 제시하기로 한다.

속성을 전제로 한다.<sup>54)</sup> 그런데 사실 같은 어휘장에 속하는 단어들은 의미 속성뿐만이 아니라 형태론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sup>55)</sup> 이를 ‘동’, ‘서’, ‘남’, ‘북’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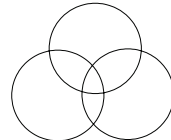
첫째, 같은 어휘장에 속하는 단어들 가운데는 그 구조가 형태론적으로 평행한 것이 적지 않다. ‘동’, ‘서’, ‘남’, ‘북’의 경우는 같은 어휘장에 속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동’을 ‘동쪽’으로 바꿀 수는 없다. 즉 ‘동쪽’, ‘서’, ‘남’, ‘북’은 같은 어휘장에 묶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동’이 ‘동쪽’이 된다면 나머지도 이에 따라 ‘서쪽’, ‘남쪽’, ‘북쪽’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같은 어휘장에 속하는 단어들은 ‘한자어’ 혹은 ‘고유어’ 등 어종이 동일하다. [동쪽을 의미하는 ‘새’<sup>56)</sup>는 ‘동’과 단어 구조에서 동

54) 공통된 의미 속성은 Wittgenstein의 이른바 ‘가족닮음(family resemblance)’과 모순되는 듯하지만 ‘가족닮음’이 ‘일반화의 강박증에 대한 치료제’(정시호, 2000: 513)라고 보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닮음’이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Dörschner(1996: 75)에서 ‘가족닮음’ 개념을 다음의 두 가지로 도식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고된다.(그림을 단순화시킴)



〈그림 1〉



〈그림 2〉

최형용(1997)에서는 〈그림 1〉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형식명사, 보조사, 접미사의 상관 관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55) 물론 단어 이상의 경우에도 형태적 공통점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종갑(2001: 67)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적 평가어의 어휘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고유어 부분인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 노력 요함’은 모두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명사형 종결형이라는 형태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	우	미	양	가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	노력 요함	

56)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새’가 ‘동쪽’의 함복

일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이기 때문에 ‘동’ 대신 [방위]의 어휘장에 참여할 수 없다.

셋째,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동’, ‘서’, ‘남’, ‘북’의 경우에는 공유하는 부분이 없지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형태소가 둘 이상이 되면 ‘쪽’처럼 공통 요소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하나의 어휘장에 속하고 구성원들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형태상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고기잡이’와 ‘손잡이’처럼 공통 요소의 출현이 늘 같은 어휘장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같은 어휘장에 소속되기 위한 필요조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속성들은 동의 관계보다 반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동’, ‘서’, ‘남’, ‘북’의 ‘동’과 ‘서’, ‘남’과 ‘북’이 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동’과 ‘서’는 반의 관계이지만 ‘동쪽’과 ‘서’는 반의 관계가 아니며 ‘새’와 ‘서’도 반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동’과 ‘동쪽’, ‘새’는 동의 관계(혹은 유의 관계)에 놓여 있다.

같은 어휘장에 속하는 단어들 사이의 형태론적 형성 과정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 준다. ‘셈’을 공통 요소로 가지고 있고 같은 어휘장의 구성원들이지만 사이시옷과 같은 것(‘덧셈’, ‘나눗셈’)이 출현하기도 하고 관형사형(‘뺄셈’)이 나타나기도 하며 명사(‘곱셈’)가 출현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들의 한자어 동의어는 ‘가산(加算)’, ‘감산(減算)’, ‘승산(乘算)’, ‘제산(除算)’으로 그 구조가 평행한 것과 대조된다. 만약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뺄셈’에 맞추어 ‘더할셈’, ‘곱할셈’, ‘나눌셈’이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또 고유어로 이들을 각각 ‘더하기’, ‘빼

---

방언으로 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는 ‘샛바람, 뉘새, 된새’ 등의 ‘바람’ 관련 단어에 남아 있고 ‘금성’을 뜻하는 ‘샛별’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명사임에 틀림없다.

기, ‘곱하기’, ‘나누기’라 하고 그 구조가 평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어휘적 단어’, ‘어휘부’, ‘어휘 관계’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 가운데 ‘어휘적 단어’와 ‘어휘부’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어휘’의 범위를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좁게 혹은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어휘 관계’는 어휘의미론의 측면에서 ‘어휘’의 일반적인 의미에 가장 부합하지만 이번에는 ‘어휘 관계’를 형태론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렇게 보면 본 논의는 ‘어휘’가 어떤 범위로 해석되는 그것을 형태론적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셈이다.

다소 순환론적이고 역설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휘’의 범위가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론의 가장 중요 관심사인 ‘단어’의 범위가 혼동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의는 ‘단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단어’를 바라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형태론의 본령은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는 다른 분야의 관점을 원용하여 발전적으로 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인지의미론의 은유의 관점에서 유추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의미 전이를 보이는 은유표현 합성명사를 대상으로 ‘배추머리’, ‘꿀참외’ 처럼 의미 전이가 합성과정뿐만 아니라 ‘곱슬머리’, ‘공부벌레’ 처럼 합성과정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 채현식(2006나, 다)의 논의가 이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사 이근수박사환력기념 논총』, pp.1-10.[이병근 외 편(1993), 『형태』(태학사)에 재수록]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국어학』 46, pp.19-51.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05), 「국어 접미사의 분류에 대한 재검토」, 『우리말연구서른아홉』, 태학사, pp.13-40.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0-2, pp.179-199.
- 국립국어연구원(2002가),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 국립국어연구원(2002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 김광혜(198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탑출판사.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pp.177-195.
- 김창섭(2010), 「조사 ‘이서’ 에 대하여」, 『국어학』 58, 3-27.
- 노명희(2004),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한자어」, 『한국언어문학』 53, pp.123-151.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노명희(2006),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48, pp.259-288.
- 노명희(2007), 「한자어의 어휘 범주와 내적 구조」, 『진단학보』 103, pp.167-191.
- 노명희(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 51, pp.89-113.
- 노명희(2009가), 「국어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54, pp.275-302.
- 노명희(2009나), 「어근 개념의 재검토」, 『어문연구』 37-1, pp.59-84.
- 노명희(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pp.255-281.

- 박보연(2005), 「현대국어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종갑(2001),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 의미론』, 박이정.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1999), 「형태론의 제자리 찾기-인접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태론』 1-2, pp.319-340.
- 손혜옥(2008), 「'조사결합어'에 관한 연구」, 『형태론』 10-1, pp.85-110.
- 송기중(1998), 「어휘 생성의 특수한 유형-한자차용어-」,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pp.593-615.
- 송원용(2005가), 「다중 어휘부 구조 가설의 실험심리학적 검증-생산적 접사 '-개, -질, -적'을 중심으로-」, 『형태론』 7-2, pp.257-276.
- 송원용(2005나), 「신어의 어휘부 등재 시점 연구-어휘 지식 유무 검사를 통한 검증」, 『국어학』 46, pp.97-123.
- 송원용(2009), 「국어 선어말어미의 심리적 실재성 검증」, 『어문학』 104, pp.83-102.
- 송원용(2010), 「형태론 연구의 쟁점과 전망-유추론자와 규칙론자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8, pp.1-44.
- 송원용(2011), 「한자계 어근 분류 방식의 심리적 실재성」, 『형태론』 13-2, pp.225-244.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2006),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 『배달말』 39, pp.117-141.
- 시정근(1999),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2, pp.261-283.
- 시정근(2001), 「국어의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7-1, pp.163-184.
- 시정근(2002), 「단어를 바라보는 눈」, 『문법과 텍스트』(고영근선생정년 퇴임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pp.195-216.
- 시정근(2006),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 『형태론』 8-2, pp.257-276.
- 시정근(2010), 「공형태소와 형태 분석에 대하여」, 『국어학』 57, pp.3-30.
- 안병희(1965), 「문법론」, 『국어학 개론』, 수도출판사.
- 안병희·임홍빈·권재일(1997), 「언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논총』 38(서울대), pp.1-86.

- 안소진(2010), 「국어화자 2음절 한자어 구성요소 파악에 대한 고찰- ‘작-간접류’의 형성과 관련하여」, 『형태론』 12-2, pp.201-216.
-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규환(2008), 「현대 국어 조사 결합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정(2008), 『국어문법연구Ⅲ-한국어 품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이광호(2002), 「유의어 정도성 측정을 위한 집합론적 유형화」, 『문학과 언어』 24, pp.57-78.
- 이광호(2007가),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2007나), 「상대 빈도를 이용한 생산성 측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0, pp.57-76.
-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상욱(2004),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승녕(1954), 『고전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pp.93-113.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흥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pp.168-192.
- 임흥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교착소’와 ‘교착법’의 설정을 제안하며」, 『관악어문연구』 22, pp.93-163.
- 임흥빈(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pp.69-106.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정시호(1994), 『어휘장이론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정시호(2000), 「가족유사성 개념과 공통속성어휘장 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어 내용론』 7, pp.491-520.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현식(1999), 「조어론의 규칙과 표시」, 『형태론』 1-1, pp.25-42.
- 채현식(2003가),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채현식(2003나), 「대치(代置)에 의한 단어형성」, 『형태론』 5-1, pp.1-21.
- 채현식(2006가), 「규칙과 유추의 틀」, 『이병근선생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pp.567-583.
- 채현식(2006나),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와 관습화」, 『한국언어문학』 58, pp.5-23.
- 채현식(2006다), 「은유표현의 해석과 유추-심리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pp.377-397.
- 채현식(2007), 「어휘부의 자기조직화」, 『한국언어문학』 63, pp.137-155.
- 채현식(2009), 「용례 기반 이론에서의 어휘 지식 표시」, 『형태론』 11-2, pp.269-286.
- 채현식(2010), 「정보의 처리와 표상의 측면에서 본 괄호매김역설」, 『한국언어문학』 74, pp.147-169.
- 최명옥(2006), 「국어의 공시형태론」, 『이병근선생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pp.13-39.
- 최명옥(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시형태론-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00), 「단어 형성과 직접 성분 분석」, 『국어학』 36, pp.161-190.
- 최형용(2002가), 「형태소와 어소 재론」, 『문법과 텍스트』(고영근선생정년퇴임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pp.263-276.
- 최형용(2002나),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pp.301-318.
- 최형용(2003가),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최형용(2003나), 「'줄임말' 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 pp.191-220.
- 최형용(2004), 「파생어 형성과 빈칸」, 『어학연구』 40-3, pp.619-636.
- 최형용(2006가), 「합성어 형성과 어순」, 『국어국문학』 143, pp.235-272.
- 최형용(2006나),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



- 중인문학연구』 19, pp.339-361.
- 최형용(2007가), 「동의 총돌에 따른 의미 변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50, pp.329-355.
- 최형용(2007나),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하스펠마트(2002), Understanding Morphology를 중심으로」, 『형태론』 9-2, pp.375-401.
- 최형용(2008), 「국어 동의과생어 연구」, 『국어학』 52, pp.27-53.
- 최형용(2009가),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1, pp.3-26.
- 최형용(2009나), 「현대 국어 사이시옷은 과연 형태소인가」, 『형태론』 11-1, pp.61-78.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 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7, pp.61-92
- 최형용(2011), 「한국어의 형태론적 현저성에 대하여」, 『형태론』 13-1, pp.1-28.
- 한스 슈바르츠(Hans Schwarz)(박성철 옮김)(2006), 「날말발:용어, 개념, 비유들-전망」, 『한글』 273, pp.219-243.
- 허 응(1963), 『언어학 개론』, 정음사.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황화상(2010), 「단어형성 기제로서의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58, pp.61-91.
- Ackema, P. & A. Neeleman(2007), “Morphology≠Syntax”, In G. Ramchand & C. Reiss(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Interfa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25-352.
- Anward, J.(2001), “Parts of speech”, In M. Haspelmath & E. König & W. Oesterreicher & W. Raible(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pp.726-735.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The MIT Press.
- Aronoff, M.(1994), *Morphology by Itself*, Cambridge, Mass: MIT Press.

- Bauer, L.(1988), *Introducing Linguistic Morph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auer, L.(2001), *Morphological Produc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oij, G.(2005), *The Grammar of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oij, G.(2010), *Construction Morp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ybee, J.(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 In R. A. Jacobs & P. S. Rosenbaum(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 and Company, pp.184-221.
- Di Sciullo, A. M. & E. Williams(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MA: MIT Press.
- Dixon, R. M. W. & A. Y. Aikhenvald(eds.)(2002), *Word: A Cross-Linguistic Ty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örschner, N.(1996), *Lexikalische Strukturen*, Wortfeldkonzeption und Theorie der Prototypen im Vergleich, Münster.
- Greenberg, J. H.(1954),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morphological typology of language" , In Spencer, R(eds.) *Method and Perspective in Anthrop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192-220.
- Haspelmath, M.(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 Hay, J(2001), "Lexical frequency in morphology: Is everything relative?" , *Linguistics* 39-4, pp.1041-1070.
- Jackson, H.(1988), *Words and Their Meaning*, New York: Longman.
- Jensen, J. T.(1990),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ulien, M.(2007), "On the Relation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 In G. Ramchand & C. Reiss(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Interfa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09-238.

Katamba, F.(1993)/김경란·김진형(역)(1995), 『형태론』(Morphology),  
한신문화사.

Matthews, P. H.(1991), *Morphology(2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pir, E.(1921), *Language*, New York: Harcourt.